

# 방류한 '참담치' 치패 안착 성공

### 방류한 토종홍합 새끼조개 10만마리, 1cm에서 5~6cm까지 성장 확인 진주담치 보다 10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 어업인 고소득 창출 기대

군산시(시장 김임준)가 자원 남획 등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토종홍합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방류했던 새끼조개(치패)가 성공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2023년 11월 15일 옥도면 연도해역에 방류한 새끼조개들의 성장을 점검하면서 밝혀졌으며 현재 새끼조개들은 방류 주변 암반 등에 안착하여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담치는 홍합과에 속하며 밀물 때 잠기고 썰물 때 노출되는 지역인 조간대에서 수심 5~10cm 내외의 암초에 즉사(홍합의 몸에서 나오는 가느다란 실)를 붙이고 산다.

껍질은 오각형으로 매우 두껍고 단단하며 크기는 15~20cm 내외로 2년 만에 13cm 이상 자란다. 특히 째뽕 등

대중 요리에 사용하는 외래종 진주담치보다 최고 5배 크기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번 성장 조사는 6월, 8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를 통해 연도해역은 참담치가 자라기 적합한 수온, 염분 및 먹이생물 등을 포함한 적지로 밝혀졌으며, 앞으로 서식 분포가 높아지면 부가 유용 패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군산시는 앞으로 어업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참담치를 지역특산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참담치는 생산량이 적어 가격도 진주담치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판매되어 도서 어업인에게 새로운 고부가 유용 패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군산시는 앞으로 어업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참담치를 지역특산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참담치가 잘 자라는 적지 해역 확보 후 방류사업 실시 지속 △방

류한 새끼조개의 생식소가 자라서(약 12~18개월의 기간이 필요) 자연 개체 수가 증식할 때까지 포획금지 설정 등 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임준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어류 외에 패류까지 발굴 확대했다. 앞으로 풍요로운 어촌, 수산업 경쟁력 강화, 어가 소득 향상을 이루기 위해 지속 가능한 어업 단지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참담치 방류사업은 비예산 시범사업이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참담치 종 복원과 치패 양식 기술 개발을 계속해 자원량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추석 장보기로 익산 전통시장 '활력'

### 18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특별기간'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다리로움' 할인 20%로 확대

익산시가 추석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익산시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물가 급등과 경기침체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통시장 장보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기간 시는 익산시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한다.

실제 오는 11일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국·소·단별 직원들이 정감 있고 활기찬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북부시장을 비롯한 7개 전통시장에서 다리로움 지역사랑상품권

과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한 명절 장보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인 '다리로움(多로움)' 혜택을 확대한다. 9월 한 달 동안 민생 회복 특별대책 일환으로 기존 10% 할인에 10%를 더한 총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로 오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안에 있는 다리로움 가맹점에서 3만 원 이상을 다리로움으로 결제할 경우 500명에게 다리로움 포인트 1만 원을 지급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다리로움 혜택 확대와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며 "따뜻한 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장 "청렴도 높여 시민 신뢰 회복해야"

###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중간 보고... 청렴도 평가 중요성 강조·공직사회 청렴도 저하 질타

2일 반부패 청렴도 향상 보고회에 참여한 김임준 군산시장은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군산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강 시장은 "2024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중간 보고에서 '청렴은 시민들의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인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청렴도가 높아야 공직사회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청렴도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공사와 보조금 지원 분야의 공직자 금품 및 향음 제공 등의 '부패경험률'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도 지적했다. 강 시장은 "보조금 업체에 사례비를



받거나 공사업체와 골프 회동, 식비 대납 등의 행위가 있는 것인지 문지 않을 수 없으며, 국장들과 과장들 모두 중간보고를 통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질책했다.

매년 하반기 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노력 및 청렴 인식과 문화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올해 청렴도를 한 단계 더 높은 3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중간 보고에 앞선 간부회의에서는 노후 관리 상수관 교체나 각종 도로 공사로 시내 곳곳의 도로가 파헤쳐져 시민들의 불편을 불러일으킨다고 질타했다.

강 시장은 "앞으로 예산 낭비 요인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국·과장이 사업을 직접 공유해 정해진 사업 날짜를 맞춰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2024 익산 중앙동 치맥 페스티벌' 성료

무더웠던 여름을 떠나보내는 시원한 '치맥 축제'가 익산에서 열렸다.

2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30~31일 익산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열린 '2024 중앙동 치맥 페스티벌'에 약 1만 명이 방문해 중앙동이 들쭉였다.

익산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치킨 브랜드와

맥주 업체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하립과 다사랑을 비롯해 세븐브로이, 이리맥주, 하이트 등 여러 지역 업체가 시민들에게 최고의 맛을 선보였다.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자음악(EDM) 공연 등을 통해 축제의 열기가 달아올랐다. 흥겨운 음악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무대 앞으로 나와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입맛에

맞는 치킨과 맥주를 골라 즐기며 8월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또 방문객들이 축제를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행사와 이벤트가 마련됐다. 1,300만 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누구나 축제에 참여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익산 지역사랑상품권 다리로움으로 쿠팡(QR)결제 시 10% 추가 적립 이벤트까지 제공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도 더해졌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익산에 재해복구금 9700만원 지원

익산시는 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재해복구지원금 9,7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익산시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진행됐다. 시는 이번 지원금을 기록적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설과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을 회원으로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 법인이다. 2012년부터 회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재해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전달식에 참석한 장동욱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본부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익산시에 공제회 재정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하반기 경유차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익산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763건, 5억3,970만 원을 이달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에 대해 대기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3월, 9월에 정기 부과된다.

이번 2기분 부과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이며, 후납제 납부형식으로 자동차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일할 계산 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이달 말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창구 또는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063-859-544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추석맞이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 도·군산시, 소외된 상점이 위한 시범 추진... 최대 2만원 한도

추석맞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자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그동안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꾸준히 참여해왔으며, 환급행사 미참여 전통시장의 역차별 해소와 상생 방안으로 공동참여하는 순환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운 바 있다.

이번 추석맞이 환급행사는 전북 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환급행사로 해수부 환급행사에 참여 불가능한 상점가를 포함하여 시범 추진한다.

현재까지 인근 상점가들은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환급행사 참여가 불가능했다. 시·도

는 이번 자체 환급행사 시범운영을 통해 개별 상점가를 포함하여 추진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자체 환급행사는 수산물종합센터 및 해신상가가 합동 추진하여 114점포가 참가했다. 행사 기간은 9월 5~8일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이다. 환급기준은 행사 기간 중 당일에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며,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

2024년도 기준으로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권을 환급해주며, 6만 7,000원 이상 물건을 사면 2만원권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